

2024년 6월 2일(주일) 제1685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2024 흥해작전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일시 2024.06.06(목) ~ 06.22(토)

강사 손달익 위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06.17(월)~06.22(토), 오전 05:00~06:00

새벽기도회

06.06(목)~06.15(토), 오전 05:30~06:00

2024 흥해작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6월 6일(목)부터 22일(토)까지 '흥해작전' (본부장: 김혜언 장로)을 진행합니다. 오늘 찬양예배는 흥해작전을 여는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흥해작전은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새벽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 흥해작전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2024년 흥해작전은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바로 이 스토리북!

흥해작전 기간 동안 스토리북이 제공됩니다.

"출석 확인"(여정표), "중보기도 미션", "말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22일(토), "흥해장터"가 8층 만나홀에서 열립니다.

흥해장터에서는 "흥해페이"로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흥해페이가 필요하시나요?

방법 1) 열심히 참석하시고

2) 더 열심히 기도해주시면 드립니다.

1) 새벽기도회 1회 참석시마다 - 1페이 (전체출석시 15페이)

2) 중보기도 미션 (기도자 10명) 달성시 - 5페이 지급



획득가능한 1인 최대 금액은 20페이입니다.

흥해페이의 교환은 "흥해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흥해은행은 22일(토) 2층 본당 앞 로비에서 새벽 5:20부터,

8층 만나홀 앞에서는 7시부터 운영됩니다.

23일(주일)에는

"대치동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공감 음악회"가 있습니다.

전문연주팀은 물론, 서울교회 전문팀들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흥해작전 기간 중 마련된 4행시 시상과

응모권 추첨이 있습니다.

"응모권"은

6/6(목), 6/15(토), 6/22일(토) 단 3일,

3번의 응모 기회가 생깁니다.

"4행시"는 말이죠!

총 5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흥해작전, 가정회복, 담임청빙, 다음세대, 배려속복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인이 참여 가능합니다.

작성 후 교구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8층에서 스티커 자유 투표를 진행하여

세 분께 시상합니다.

4행시 제출일: 6월 15일(토)까지

교환
완료

2024 서울교회 흥해작전

중보기도 미션

기도해 드릴까요?

이웃을 위한 기도 미션입니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총 10명의 이웃에게 기도제목을 받고 기도합니다.

(교역자/장로, 교구식구, 교회학교, 찬양대원, 예배위원 등)

기도제목을 적는 10개의 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름과 소속, 기도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16일(주일)까지 10명 미션 달성 후,

22일 흥해은행으로 오시면 5페이로 교환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사랑을 지극히 모든 중보자로 향한 그 중심에 계시는 내게로
내게로 지극히 선한 것을 보았기에 그 중심에 있을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머릿고
복을 그리스도인들 할리야와 영의 불꽃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말 1:9-11)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은혜 입은 한 사람

창 6:1-8



손달익 위임목사

사람은 제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교수는 그의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 구조와 현상이 너무나 비도덕적이어서 도덕적인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도 ‘나 혼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사회적 유익이

있을까?’라는 회의와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밀려오는 비도덕적 사회의 집단적인 불의와 폭력을 용납하지 말아야 세상의 내일에 희망이 생긴다고 역설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의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5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는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대재앙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세상이 희망으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던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근심과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작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1-2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일된 견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인의 후예들과 혼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여인들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세상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사역자를 선택하실 때도 혈통, 민족, 국적, 신분과 계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골 3:11). 하나님은 누구도 육체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십니다.

4절에 나오는 ‘네페림’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이들이 득세하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사에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오직 자기감정과 욕망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하리니”(수 1:7),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면우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도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도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매우 부패하다고 판단하시고, 그 부패의 정도가 극심해서 고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만드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고 허물어지고 썩은 것들을 모두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파멸에 목적이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결정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우리 사회 전반에 또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없어져야 하고 낡고 병든 구태의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명,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과 혁명의 이름

으로 이루어진 것은 살육과 파멸의 참혹한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세상에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낡고 병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신 후 새 하늘, 새 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사람이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3. 은혜 입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재창조의 새 역사 만들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본문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8절)고 말씀합니다.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9절)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부패한 세태에 물들지 않고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영웅적인 투쟁 역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외롭고 연약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생각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해석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묵묵히 준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고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이 노아가 역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한 사람이 새 역사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김혜언 장로
(2024 홍해작전 본부장)

“... 물 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요 2:9)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으로 금년 “홍해작전”은 이번이 37년째입니다. 37년 동안, 원로목사님의 홍해 지침같이 아프지 않으려, 출장도 겹치지 않으려 분투하고, 때로는 자는 아이들을 둘러업고, 다락방 식구들을 채울 수 있는대로 카풀을 하며 기도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기도해야 할 기도제 목들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홍해작전에 임하는 저의 마음은 “물 떠온 하인”이라는 고백이 앞섭니다. 교

회 입당, 분란 해결뿐 아니라 아버님의 구원,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소천, 자녀 양육, 9번의 이직 등 앞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경 험하며 제가 바로 물 떠온 하인이 되고, 기도의 산 증인이기 되었기 때문입 니다.

새벽 참여가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로 이끌고 건너게 하시는 분,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로 나 아가려 합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일단 빠지지 마시

고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중보의 힘이 크니, 나와 함께 기도하실 중보자들을 찾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은혜롭 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기도와 찬양 잔 치로 초대해 주시면 기쁨이 배가 됩니 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고를 치며 찬양드렸던 것과 같이 “홍해 잔치”(홍해장터와 이웃초청음악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능력자이 시니, 하나님께서 꽃아 놓으신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출정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며



새가족부(부장:차영도 장로)에서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성도님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수료자들이 서울교회에서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구와 다락방, 선교회, 전도회, 교육부서 등의 기도와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김보라 성도
(1교구)

급하게 이사를 오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새가족부 전도사님과 권사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새가족 교육을 받는 데도 따듯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피곤하다는 핑계로 묵상 기도 등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교회로 오면서 좀 더 으쌰으쌰 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살 아들과 19개월 딸 항상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남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저도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환영해 주신 서울교회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초신자로 돌아간 듯합니다



신수정 성도
(3교구)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이 이어져 왔지만, 이사로 인해 교회가 바뀌면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 다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간 듯 매 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뜨겁게 말씀 전해주시며, 도전과 격려로 힘을 북돋아주신 전도사님과 매 주 말씀도 보내주시며 잘 챙겨주신 김정희 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으로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을 서울교회의 한 가족으로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범민선 성도
(3교구)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집안에 태어난 저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주일마다 저에게 교회 가자며 저희집 대문을 두드리시던 피아노 학원 젊은 여자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전남 광주 신안교회 다니시던 분으로 불교신자이신 저의 어머니에게 교회로 아드님을 데리고 가겠다고 매 주일마다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시진 못하셨어요. 저는 가고 싶지도 싫지도 않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긴 하였는데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서 한 번도 펴본 적 없었죠. 신안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개방하여 쉽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놀곤 했었죠. 지금도 광주 가서 신안교회를 보면 포근한 감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진학반에 있던 3학년 선배가 스쿨버스 안에서 저에게 교회 가자며 1년 동안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본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를 따라 교회를 한 번 갔습니다. 이후 대학시절 네비게이트 모임에 초대 받고 의대 선배들이 저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성경공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던 저를 주님은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자녀인 아내를 만나 전남 광주 지원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순천제일교회, 대치동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오기 전에 주변에서 추천해 준 다른 큰 교회 예배를 다녔었습니다. 엄청난 찬양 예배 및 주옥같은 설교말씀에 제 마음은 은혜를 입었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은 막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서울교회였습니다. 큰 교회 큰 장점만을 찾던 저에게, 어느 순간에 서울교회에서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회보다 단점이 없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니?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편안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분을 대할 때 살릴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포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환자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희가 힘들어하거나 무섭거나 생명 다할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기까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 교육을 통해 손달익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께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교회에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들과 딸을 환영해 주신 서울교회 손달익 위임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 교육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데리고 가겠다고 매 주일마다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시진 못하셨어요. 저는 가고 싶지도 싫지도 않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긴 하였는데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서 한 번도 펴본 적 없었죠. 신안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개방하여 쉽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놀곤 했었죠. 지금도 광주 가서 신안교회를 보면 포근한 감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진학반에 있던 3학년 선배가 스쿨버스 안에서 저에게 교회 가자며 1년 동안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김주영 성도
(4교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말씀 구절은 서울교회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위험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간 박미라 전도사님을 통해 새가족부 교육을 배우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미연 교사님의 배려와 깊은 관심도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교우분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이었던 새가족부



송정운 성도
(7교구)

새가족부의 5주간의 교육은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수년간 천주교 신자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교사 나현주 권사님과 박미라 전도사님의 인도로 하나씩 익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산나대학 소식



5월 28일(화), 호산나대학(학장 : 이동귀)과 길요양원(원장 : 허숙희)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요양원 현장실습에 관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장실습 학생 선발, 배치, 안정적인 실습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신규 인력 총원 시대학 추천 인력 우선 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숙희 원장은 “호산나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노인케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학생들이 본 요양원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요양원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고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노인케어학과를 2006년 개설하였습니다. 현장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졸업생 다수가 수도권 대형병원, 요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거나 졸업생들이 병원당 3-5명씩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7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창세기 3장의 말

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명령인 줄 알면서도 부당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서 멀리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문: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창세기 3장 8절-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반역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었다.
- ② 여자에게 원수가 생기게 되었다.
- ③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
- ④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다.
- ⑤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게 되었다.

- ⑥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다.
- ⑦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 ⑧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 ⑨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은 자비와 공의입니다. 마치 내향성(I)과 외향성(E)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와 공의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와 공의는 충돌을 일으키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제10문답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을 확인해 보았는데, 동일한

본문 창세기 3장 8-21절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자비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른바 '원시복음'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는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한 원수를 멸하시겠다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둘째는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동을 의무와 권리로 주셨습니다. 비록 땀은 좀 흘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밭의 채소를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당장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자비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차피 용서해 주실 거면 심판을 없애주시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의 법 적용을 보면 아무리 문제가 없어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지적하고 설명하고 벌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대로 습관을 따라 규정을 무시하는 인간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정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자신들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었습니. 이 규정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포함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

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본래 지킬만한 율법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율법을 입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약속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사람들 범 죄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육방법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교육 방법으로 또는 훈육방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훈육된 사람들이 갖게 된 성품을 심리학에서는 GRIT 이라고 합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 최승우 군·이채린 양
(6교구 이하경 집사, 최종금 권사 딸)
6월 8일(토) 오후 2시 더청담 2층 노블레스

식사 제공



- 조원영 목사 이진희 사모
(이진희 사모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6.2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6.5	도르가, 루디아, 뵤뵤
6.9	자원자	바울, 엘리야	6.12	마리아
6.16	자원자	모세	6.19	한나 에스더(오후 2-3시)
6.23	자원자	이사	6.26	리브가
6.30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6월3일	월	욥 8-10	신7	시90	사35	계5
6월4일	화	욥 11-14	신8	시91	사36	계6
6월5일	수	욥 15-18	신9	시92,93	사37	계7
6월6일	목	욥 19-21	신10	시94	사38	계8
6월7일	금	욥 22-26	신11	시95,96	사39	계9
6월8일	토	욥 27-30	신12	시97,98	사40	계10
6월9일	주일	욥 31-33	신13,14	시99-101	사41	계1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라는 흥해작전 주제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영성을 갖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2. 2024년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에 모든 다락방,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지와 비전2030군선교지, 놓여준 후원교회를 지켜 주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헌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